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대로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에는 너희가 모르는 분이 서 계신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신데,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리기에 도 합당하지 않다.”
(요한 1,23.26-27)



Anton Raphael Mengs, <세례자 요한의 설교> 유채, 에르미타슈 미술관, 러시아

[제1독서]..... 이사 61,1-2ㄱ.10-11

[화답송] 루카 1,46ㄴ-48.49-50.53-54
(© 이사 61,10ㄱ 참조)

◎ 내 영혼이 내 하느님 안에서 기뻐하네.



-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내 마음 기뻐 뛰노네. 그분이 비천한 당신 종을 굽어보셨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하리라. ◎
-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일을 하셨으니,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분 자비는 세세 대대로 그분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미치리라. ◎
- 굶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고, 부유한 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네. 당신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돌보셨네. ◎

[제2독서]..... 1테살 5,16-24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복음] 요한 1,6-8.19-28

[성가 안내]

- 입당성가: [482] 일월성신을 내시고
- 봉헌성가: [342] 제물 드리니
[340] 봉헌
- 성체성가: [170] 자애로운 예수
[167] 생명이신 천상 양식
- 파견성가: [481] 요르단 강에서

복음 너희 가운데에는 너희가 모르는 분이 서 계신다.

6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7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8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19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었을 때, 20 요한은 서슴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고 고백한 것이다. 21 그들이 “그러면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하고 묻자, 요한은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그 예언자요?” 하고 물어다 다시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22 그래서 그들이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우리가 대답을 해야 하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23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대로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24 그들은 바리사이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25 이들이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라면, 세례는 왜 주는 것이요?” 26 그러자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에는 너희가 모르는 분이 서 계신다. 27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신데,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리기에 도 합당하지 않다.” 28 이는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르단강 건너편 베타니아에서 일어난 일이다.

묵상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파견한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의 정체를 묻습니다. 군중이 요르단강에 모여들어 그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는 종교 운동에 대하여 지도자들이 우려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누구요?”라는 질문에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고 단호히 고백하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요한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였기에, 요한은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그들의 둘째 질문은 “엘리야요?”입니다. 요한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올 엘리야라고 긍정적인 답을 할 수 있었지만 부인합니다. 겸손한 요한은 자신을 위대한 신앙의 영웅인 엘리야에 비기지 않습니다.

셋째 질문은 “그 예언자요?”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따라 모세가 예언한 그 메시아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요한은 역시 “아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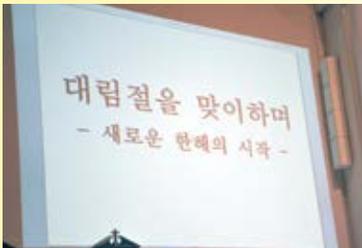
넷째 질문은 “당신은 누구요?”입니다. 신원을 밝히려는 요구에 요한은, 이사야가 말한 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하고 대답합니다.

요한은 구세주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릴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우리도 신앙인이 누구인지 자신에게 질문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심부름꾼이며, 그분을 충실히 따르면서 사람들을 그분께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부서진 이들을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갇힌 사람들을 찾아가 그리스도의 자유를 전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리스도를 외치는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류한영 베드로 신부)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매일미사



대림특강 “하느님께로 돌아감”

“하느님께로 돌아감”을 주제로 한 대림 특강이 지난 7일(목) 본당에서 있었다. 이상진 아모스 신부는 루카복음(15,11-32)을 신자들과 함께 읽고 묵상하는 시간으로 강의를 시작했다. 묵상 후에는 성서 내용 중 형제들의 모습에 비친 우리 자신을 보고 그들로부터 배울 점이 무엇인지, 또 성서에 표현된 ‘아버지의 모습’은 어떠한지 깊이 성찰하도록 이끌어 주었다.

이상진 신부는 “대림 시기는 우리가 아버지(하느님)께 돌아가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아버지(하느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시간이기도 하다”며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오랫동안 묵상하자”고 전했다.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없는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루카 15,20)



마오로말 콘텐츠

풍경 속 익명의 대서사시 베들레헴의 인구조사

나폴레옹이 1794년에 설립한 벨기에의 브뤼셀 왕립미술관(Royal Museums of Fine Arts)은 플랑드르의 대가 피테르 브뤼겔(Pieter Bruegel, 1525?~1569)의 '베들레헴의 인구조사(Census at Bethlehem)'를 비롯한 북유럽과 프랑스의 명작들을 다량으로 소장하고 있다. 16세기를 대표하는 화가 브뤼겔은 15세기 북유럽 특유의 사실주의와 고딕적 환상으로 당대를 매혹시킨 얀 반 에이크와 17세기 바로크의 화려한 조형 언어의 중심축인 루벤스의 맥을 이으며 플랑드르 회화의 황금기를 대표한다. 그는 요셉과 정혼자 마리아가 로마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칙령으로 호적 등록을 위해 조상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 귀향한 장면(루카복음 2장)을 묘사한다. 브뤼겔 일가는 그가 남긴 45점의 작품을 다량으로 복제하는 방식으로 4대에



걸쳐 200년간 공방을 운영했는데, 이 작품의 복제품은 현재까지 13점 발견되었다. 관람객은 전통적 성서 주제를 빌려와 16세기 플랑드르 지역으로 완벽하게 재현한 북유럽의 베들레헴을 본다.

네덜란드 남부의 겨울 풍경으로 묘사된 그리스도 탄생 전날의 베들레헴 지방은 브뤼겔이 추구한 자연과 인간 그리고 종교가 조화롭게 결합되었다. 그는 성서 내러티브를 시골 농민의 일상 생활로 설정했으며, 성지와 성가족을 부각시키는 시각적 장치도 암시도 시도하지 않았다.

나뭇가지에 걸린 해가 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지평선으로 향하는 해질녘에 도착한 마을은 인산인해로 붐빈다. 목수의 연장인 톱을 맨 요셉은 등을 돌려 호적등록을 위해 인구조사관에게 향하고, 긴 여정에 피곤한 마리아는 눈을 감고 나귀에 앉아 있다. 번잡하고 활기찬 마을 풍경의 전면에 위치한 두 인물의 크기와 색채는 주변과 구분되지 않는 보통의 존재로, 일상에 집중한 등장인물 모두는 이들에게 관심조차 없는 주연이자 조연이다. 이미 만원인 여인숙 표시의 화환이 걸린 건물 외벽에는 스페인 펠리페 2세의 합스부르크 가문의 독수리 문장이 짙으로 걸려 있다. 관람객은 만삭의 마리아 등 뒤로 탄생의 주무대가 될 허름한 마구간과 주변의 눈 덮인 화단에 십자가를 장식하는 인물을 발견한다.

브뤼겔은 수많은 인물들의 다양한 움직임을 전체적으로 통일시켜 복잡한 화면을 일관성있게 아우르는 탁월하고 독보적인 구성 능력을 발휘한다. 풍경화의 장르에 일상 생활과 성서를 재구성해 풍요롭게 제시하는 다양한 시각 언어는 그의 자전적 예술적 고백록이다. 평화롭고 정겹기만 한 마을 풍경과 덮인 눈은 당대 무기력한 농민의 땀박박 삶을 가리는 도구이자 장치이다. 지친 요셉이 향한 여인숙의 인구조사관은 네덜란드를 지배하는 스페인의 세금징수원으로 로마황제의 절대 권력을

비유한다. 과도한 세금정책으로 피폐해진 농민 생활에 지독한 한파로 해안에 빙산이 나타나는 천재지변의 자연재해까지 더해진다. 증폭된 종교적 갈등, 칼빈주의자들의 가톨릭 박해와 성상파괴(Beeldenstorm)와 대응하는 스페인 군대의 비가톨릭인을 향한 잔인한 탄압은 80년 전쟁이 발화되며 야만적 겨울을 맞는다. 브뤼겔은 멀리 공중에서 인간의 어리석은 탐욕과 부도덕한 모습의 부조리한 현실을 새의 눈으로(조감도 bird's-eye view)내려다 본다. 관람객의 관조적 응시는 잔혹한 당대를 조롱하고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담담한 이해와 연민의 시선이다.

브뤼겔은 인간의 본성과 일상사의 보편적 진리를 백과사전적 인물 묘사로 간결하게 비유해 신비로운 자연 속의 익명의 대서사시를 서술한다. 그는 생활 속의 종교, 스쳐 지나가는 역사적 맥락의 한 시점을 빌어 당대 현실과 농민의 암울한 미래를 고발한다. 브뤼겔은 혹독한 추위 속 허름한 마구간에서 그리스도가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육화되어 오시는 인류 구원의 신비를 전달하며 황폐한 동시대인들을 위로한다. 그는 그림을 통해 16세기의 목격자이자 농민들의 비참한 사회와 역사의 증인임을 예술가로서 충실히 이행하며 독보적인 회화 체계를 구축한다. 관람객은 그림에서 그리스도 시대나 16세기나 현재나 눈 앞의 현실에 집착하느라 지나치는 바로 옆의 위대한 역사적 의미와 사건도, 결국 일상의 일부임을 전달받는다.

브뤼겔의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브는 화려하지도 소란하지도 않은 고요한 정적 속에 머무른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익명으로 오신 주님처럼……



〈이순희 아네스〉
미술 평론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졸업
(르네상스 및 현대미술사 전공)



2017 CHRISTMAS PAGEANT

DEC.10, 2017



5th "컵타- 천사들의 노래가"



4th "Joy to the world"



K "I'm the happiest Christmas tree"



3rd "Magical night!"



7th "O Come O Come Emmanuel"



1st "God is so good & Oh! Halleluia"



6th "Jingle Bell Rock &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2nd "Song with Parents -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8th "The Nativity Play (Shadow play)"



CCD Teachers "Feliz Navidad"



“토닥토닥 수고했어요” 소사예사 콘서트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아온 신자들에게 위로와 축하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된 소사예사(소리사랑 예수사랑) 콘서트가 지난 12월 8일(금)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토닥 토닥 수고했어요” 콘서트는 신자들이 적어 낸 다양한 사연을 토대로 기획된 만큼 참석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소사예사(단장 기드온)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여준 참석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으며, 물과 간식을 준비해 준 청소년 사도회 및 진행을 도와 준 바오로회에 고마움을 표했다.



ANNOUNCEMENT

- DEC 20**
 - Christmas Break
 - When : 12/20 (Wed) - 12/31(Sun)
 - No First Communion Class, No Sunday School Class
- DEC 25**
 - The Nativity of the Lord/Christmas(Holy Day of Obligation)
 - Student Mass at 10am at the Parish Hall
 - When : 12/25 (Mon), 10am • Where : Parish Hall

12월 소공동체 모임

12월 소공동체 모임이 지난 12월 9일(토)에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마르코 복음(1,1-8)을 읽고 묵상하며 신앙과 친교를 나누었습니다.

버크 구역



유지광/보나 부부 댁에 40여 명의 구역 식구들이 모여 구역 미사와 말씀 나누기를 했습니다. 백인현 신부님은 이 날(12월 9일) 오전에 한국에서 바로 돌아오셔서 피곤하신데도 구역 미사를 집전해 주셔서 다함께 감사드리며 행복해 했습니다.

라우든 구역 2반



2018년 봉사자 권 요한/모니카 부부 댁에 12가정 38명의 구역 식구들이 모여 2017년의 뜻 깊은 마무리를 하며 다가올 새해에 대한 계획을 세우며 친교를 나눴습니다.

웨어팩스 3구역 1반



2018년 봉사자가 된 우연숙 마리아 자매댁에서 열린 모임에 9가정의 구역 식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복음을 묵상하고 참된 겸손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친교를 나누었습니다.

웨어팩스 3구역 3반



이일우 베드로/아네스 부부 댁에 10가정이 참석하여 말씀 나누기와 묵상 시간을 가졌습니다. 뒤에 오실 예수님의 길을 닦아 놓은 세례자 요한의 모습을 보며 겸허한 자세로 기다리고 회개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올 한 해도 무사히 보낼 수 있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는 '감사 촛불'을 밝히고 훈훈한 연말 파티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웨어팩스 1구역

5가정 구역 식구들이 참석한 가운데 처음 나온 허훈 미카엘 형제를 환영하며, 복음 묵상과 함께 다가오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각자 마음의 준비를 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꼬미시움 월례회의

레지오 마리아의 꼬미시움(단장 김국스텨파노) 12월 월례회의가 10일(일) 오후 1시에 친교실에서 개최되었다. 55명의 꼬미시움 및 꾸리아 간부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묵주 기도에 이어 상급평의회 소식, 백인현 안드레아 주임 신부님의 강복, 하느님의 어머니 꾸리아(단장 정우진 미카엘) 3개월 사업보고, 기타 공지사항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꼬미시움의 김 단장은 한 해 동안 협조해 준 레지오 마리아의 모든 간부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2018년 새해에도 성모님의 군대인 레지오 마리아가 가두선교를 위시한 모든 사도직 활동에 앞장 설 것을 다짐하였다.



★ **미사 안내** ★

주님 성탄 대축일 밤 미사

• 12월 24일(일) 오후 8시 (구유예절로 시작)

주님 성탄 대축일 낮 미사

• 12월 25일(월) 오전 8시, 오전 10시 (성인, 학생 합동)

☆ 주차장이 모자라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니 Northrop Grumman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년미사

• 12월 29일(금) 오후 7:30 (미사 후 간단한 친교)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

• 1월 1일(월) 오전 8시, 10시 (성인, 학생 합동)

1 하상회 정기모임

• 일시: 12월 17일(일) 오전 11:30(B-3,4)

2 안나회 정기모임

• 일시: 12월 17일(일) 오전 11:30(A-1,2,3,4)

3 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 12월 17일(일) 오전 11:40(하상관 #4,5)

4 본당 예수회 후원회 모임

• 일시: 12월 17일(일) 오전 11:30(하상관 #4)
 • 임현욱 가브리엘 신부 방문
 • 문의: 장시자 프란체스카 (571)217-5093

5 유아세례

• 일시: 12월 24일(일) 오후 3시(성당)
 • 신청: 12월 22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 복사단 송년파티

• 일시: 12월 24일 오후 8시 미사 후 (친교실 B-1,2)
 • 복사단 송년파티에 복사단원들과 부모님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의 행사

날짜	축일	행사 및 내용 (시간 및 장소)
12월 17일(일)	대림 제3주일	안나회(오전 11:30, A-1,2,3,4), 하상회(오전 11:30, B-3,4), 꾸리아 월례회의(오전 11:40, 하상관 #4,5), 성서동독반
18일(월)	대림 제3주간	아침미사(오전 6시, 성당)
19일(화)	대림 제3주간	성령기도회(오후 8시), 성서동독반(오후 8시, B-4), 레지오 마리아(오후 8시),
20일(수)	대림 제3주간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친교실), 첫 영성체반(오후 8시, 하상관)
21일(목)	대림 제3주간	아침미사(오전 6시, 성당)
22일(금)	대림 제3주간	CLC모임(오후 8시, 성당), 바오로 자매 모임(오후 8시), CYO Winter Retreat (Camp High Road, 22-24일)
23일(토)	대림 제3주간	아침미사(오전 7시, 성당),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친교실)
12월 24일(일)	대림 제4주일	요한회 정기모임(오전 11:30, B-3), 유아세례(오후 3시),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오후 8시, 성당), 대친교(친교실), 복사단 송년파티(오후 8시 미사 후, B-1,2), 주일학교 휴강

7 요한회 정기모임

• 일시: 12월 24일(일) 오전 11:30(B-3)

8 요한회 송년회

• 12월 29일(금) 성당 송년회날 포장마차 봉사를 겸해서 성당 뒤 주차장에서 술꽃파티로 대신합니다. 오후 6시 까지 부부 동반으로 전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9 2017년 교무금 납부 안내

• 세금 공지서 발급관계로 2017년 교무금을 12월 31일(일)로 마감합니다. 2017년 교무금을 미납하신 분들은 가능한 빨리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8년 교무금 카드는 세금공지 납부서와 함께 우편으로 각 가정으로 발송되니 당분간 카드 없이 납부해 주십시오.

10 2018년도 매일미사, 병초, 봉헌초 주문

• 성물부에서 2018년 매일미사, 병초, 봉헌초(미사에 사용) 주문받습니다.

11 주일학교 휴강 안내

• 2017년 12월 24일, 2017년 12월 31일

12 성탄 제대 꽃 봉헌 접수

• 성탄 제대에 꽃 봉헌을 하실 분은 제대로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황 줄리아 제대화장 (703)628-5262

13 남자 화장실 공사 안내

• 남자 화장실 공사로 인해 4주 동안(2018년 1월 2일-26일까지)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공사 기간 동안 하상관 1층 남자 화장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4 2018년 March for Life (생명 수호 운동)

• 일정: 2018년 1월 19일(금)
 • 참석 인원: 선착순 55명
 • 참가 신청: 12월 24일부터 4주 동안 받습니다.
 • 문의: (703)978-4005

산타가 되어주세요!



대림시기를 보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Giving Tree가 분당 입구에 세워졌습니다. 원주 까리따스 주최로 해마다 이어져 온 사랑의 Giving Tree에는 강원도 지역, 네팔, 파푸아 뉴기니, 필리핀 지역 아동들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카드가 달려 있습니다. 이들에게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을 전해 주세요.

아동 1명당 후원금은 **\$20**입니다.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30, 830
Fios Ch. 30

12월 21일(목) 오후 5:00-6:00
 12월 22일(금) 오후 8:00-9:00
 12월 24일(일) 오전 6:00-7:00

뉴스

• 황창연 신부와 함께 하는 성경여행 : 바빌론 유배와 유다교 탄생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17년 12월 10일 (대림 제2주일)

주일헌금	\$ 10,350.00
교무금	\$ 18,875.00
교무금(크레딧카드)	\$ 6,090.00
특별헌금	\$ 100.00
2차 헌금	\$ 4,333.00
합계	\$ 39,748.0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해주세요

♥ 병중에 계신분

고상균(스테파노), 김영화, 은규희(별바라), Thomas Byrne, 정맹금(테레사), 김영식(요셉), 박상연(라파엘), 정중희(별바라), 김만복(아네스), Dan Cho, 전원후(마리아), 김태명(시몬), 박재중(요셉), 송영하(요한), 김용구(베네딕), 김영자(세레나), 김영식(베드로), 양소자(루시아), 박용재(토마스), 김동분(아가타), 오인균(바오로), 신순영, 이숙(소화 데레사), 백유미(세실리아), 박광원(아나시요), 안순경(모니카), 이수선, 김화순(세실리아), Lauren Maguire, 김광자(세실리아), 이주원(카타리나), 최창일(토마스), 최재근(시몬), 권 미카엘, 김 루시아

♥ 군복무자

강로린(루피나), 김도윤(유지니오), 김동진(마테오), 신동우(미카엘), 안성호(요한), 구본인(론지오), 이슬(루시아), 이재운(안토니오 파도바), 임현석(아버도), 손범기(펠릭스), 윤벽참(프란치스코), 주기환(필립), 최홍집(앤토니), 심용천(요한), 장동길(피터), 전성호(세례자 요한), 권범수(요한), 임철민(요셉), 최용성(프란치스코), 고미셀(미카엘라), 에스터 정(세레나), 신재훈(대건안드레아), 정수지(요안나), 김승경(안드레아), 김성우(비오), 박준서(Justin), 박대연(엘리아스), 조중연(모세)

※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RE/MAX Gateway 부동산 www.Rachael 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정재민 치과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미카엘) DMD, PC 703-825-1191	허진 변호사 attorneyhuh24.com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88-1515	엘리사벳 백화점 화장품, 건강식품, 뉴스킨, 신발 마루 깔아드림(무료견적) 배석범(알베르토) 703-508-7743	문스 자동차 정비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이병일(다니엘) 703-266-1983
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영스 헬스케어 간병사, 간호사, 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김돈현 가정의학전문의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소아전문치과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정협)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보험/은퇴연금 이경태 요셉 생명보험, 은퇴연금 학자금, 장기 간호 보험 갖고 있는 플랜 점검 가능 703-785-4494
안 아픈 세상(양방/한방)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맞사지과 한방나라 이혁찬 한의원 703-658-5100	시티 종합 보험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현(엘리사벳) 703-352-1073	Lee's Heating & Air 히팅 & 에어컨 이일우(베드로) 703-675-8009	베스트 사인 간판 / 네온 / 박스 / 현수막 전광판 / 배너 / 메뉴판 703-887-1515	재노 오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로사) 703-772-7275
시원 냉난방 에어컨, 히팅, 플러밍 김연철(윌리엄) 703-362-7770	민기호 내과 John Min M.D. 703-462-8711	Euromotor Cars Mercedes-Benz 유스티노 한 703-855-8710	McLean Psychiatric Services 정신과 치료와 상담 Richard Kim, M.D. 703-336-2406	스킨케어 소유 스킨케어, 바디, 네일 반 영구 눈썹, 속눈썹 연장 이은영(요셉피나) 703-992-7930
한미 소독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요한) 703-451-3322	와니 건축 In & Out 핸디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빈센트) 571-331-6811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훈(마르코) 센터빌,철타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메디케어 홍석철 마테오 703-969-8956 박인경 소피아 703-969-8954	골프 레슨 성인레슨 및 원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 골퍼 환영 레지나 678-800-3451
하얀나무치과 www.whitetreedental.com 박경옥(크리스) D.D.S. 703-726-8804	그레이스 홈 케어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 / 물리치료 전문 간호 석, 박사 운영중 대표 김아네스, RN 703-865-7370	영스 히팅 에어컨, 히팅 703-728-3160	CORE 물리치료 통증, 재활치료 전문 (메디케어) 김우기(안드레아), DPT 703-865-6455	이용희 변호사 상법, 교통사고, 상속/유언, 가정법, 재판 Gregory Y. Lee(그레고리오) 703-303-2211
정수정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안나) 703-855-8575	한중희 토마스 공인 회계사	영스 노인 복지센터 오전/오후반, 차량운행, 2식사 및 간식제공, 질 높은 다양한 클래스,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민 자동차 정비 703-869-9691	뉴잉톤 오토바디 자동차 바디, 정비, 페인트 김명곤(바오로) 703-455-0008 Cell. 571-243-5037
시몽사진 Professional Photography visit: simonleestudio.com 50% off Grand opening 703-338-4665(이창재)	SEM Education Science, English, Math SAT, AP, Subject Test 703-965-8530(Selina)	SBA 대출/상업 대출 Bank of Hope Jessie kim 571-488-5003	Kim's Auto Service 자동차 정비 703-425-4600	Oh My Dog 애견 미용 방문 서비스 703-678-5301
윤 조셉 변호사 www.yoonfirm.com 교통법, DUI/DWI, 형법, 개인상해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ASSA 종합보험 메디케어 신청과 다른 플랜 소개, 세미나로 자세한 설명드립니다. 문의: 최 클라라 703-649-2110	Cha Group 앤디 차 (CPA) 703-678-8848	Kim Chiropractic & Rehab 교통사고/통증/디스크/재활치료 Dr. 김재중(요한) 703-815-2300	양 요 한 동양화 표구 전문 703-628-0114

성사 · 교리 · 하상학교 안내

성사안내 · 고해성사: 미사시작 30분전 · 병자영성체: 매주 첫 금요일 · 유아세례: 짝수 달 넷째 주일 (주보공지) · 혼인성사: 6개월전 신청 (교육 필수) · 병자성사: 위급하기전 연락 요망	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6개월) · 주일: 11:40-12:40 (하상관)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	---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 정규학기: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 여름학기: 매년 6월에 개강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 불학기, 가을학기 운영 / 매주 화, 금 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 · (703) 968-3070
--

미사 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 08:00 AM · 10:00 AM · 11:40 AM (학생 / 영어미사) · 03:00 PM (우드브릿지 한국어미사) St. Elizabeth Ann Seton Catholic Church · 05:00 PM (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07:30 PM
주일학교 수업	주일 10:00 AM
월 & 목	06:00 AM 화 & 금 07:30 PM
수요일	11:00 AM 토요일 07:00 AM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

PARISH STAFF 주임신부 백인현 (안드레아) | 보좌신부 방병준 (라우렌시오) | 사도회장 이우현 (요셉)